희망세상 (2005년 9월호 / 36호)

· 발행인 : 함세웅
· 발행처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발행일 : 2005년 9월 1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잔치 마당 언저리에서!

여름은, 지금 겪는 여름이 제일 덥게 느껴집니다. 몇 십년만의폭염이라고해마다방송에선호들갑을 떨곤하지만, 올 여름보다 덜 더웠던 듯이 기억되곤 합니다. 입추가지난 지 꽤 되었음에도 한낮 더위는 여전합니다. 바닷바람까지 불어오는 이곳 신지도 역시 풀무질하고있는대장간속같습니다.

이런 더위 속에 중학교 운동장에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섬전체가들떠하루종일달리기와씨름, 줄다리기에다 술추렴 판이 이어졌습니다. 각 리 단위의 차일이 십수 개 펼쳐져 있습니다. 운동장 주위 담벼락과 나무들 사이에마을 사람 모두 나온듯이 빼곡합니다. 작은 마을은 작은 마을답게, 큰 마을은 또한 큰 마을이랍시고거들먹거리지않고수굿하게모여앉아있습니다.

1만명넘던인구가4,000여명으로줄어든이즈음으로 셈하더라도, 거동할수있는어르신들까지모두나오신 듯합니다.

삶의 이랑이 깊게 패인 수심의 얼굴도 보입니다. 속살마저땡볕에그을려거무튀튀한속내가훤합니다. 바닷바람에헝클어진머릿결, 갈무리할짬도없이서둘러 나온모양새의노인도눈에띕니다. 몸맵시가야무지진 못해도입가엔웃음이함박만합니다. 모시옷곱게차려입은어느어르신은신수마저훤해보입니다.

항일운동을 기념한 마을잔치

오늘은항일운동을기념하면서해마다온면민들이한자리에 모여 펼치는 잔치날입니다. 광복 직후부터 시작한잔치마당으로, 방학해서고향에내려온‘ 유학생(뭍으로 진학한 대학생, 고등학생) 주최 8 · 15축구대회 가시발점이었답니다. 도중에 우여곡절을 겪으며 중단되었다가다시시작하여오늘에이르렀다니, 아주오래된 전통의광복절행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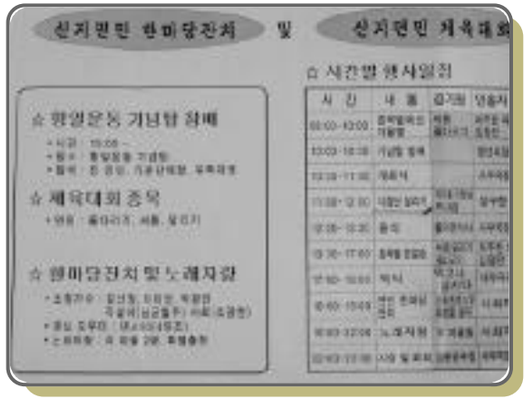
광복 60주년을 맞은 올해는 유난히 더웠지만, 굵은 빗줄기가 잦고 일기마저 불순해 명사십리 해수욕장 이용객이 예상만큼 많지 않았어도 광복의 기쁨마저 그에 비례해 줄일 순 없는 일입니다. IMF 때보다 더하다고 하는경제여건속에서중국산넙치까지몰래들어오는 까닭에 활어횟감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방 60주년을 밤에 까마귀 잡듯 넘길 일이 아니라 여겨 주관하는 쪽에선 막바지 봄부터 더욱이나 더욱 바튼 힘을 쏟았다고합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여기 조그만 섬에서 그럴진대, 정부와 정부끼리는 더욱 분발한 기념행사로 다채로웠습니다. 광복 60년을 기리는 남북의 남 · 녀 축구시합이 열리고 남측 · 북측 · 해외동포들이 한데 어우러진 ‘ 8 · 15 민족대축전 은전에 없는파격과 꽃 본 나비처럼서로끌고당기면서화기애애한분위기속에이뤄졌다고연일보도되었습니다.

마을잔치에도 생긴 작은 변화

이곳도그러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경색된식장분위기를 연출하는 게, 예전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면민 사이의 화합 한마당을 위해서지만 항일운동 정신을 기리는 개회식이기도 한지라 여태껏 엄숙히 거행해 왔다는것이지요. 후손들이계승의내면을들춰내는일이라고 인식하는 연유여서 뙤약볕에 남녀노소 다 모이게 했답니다. 땡볕이이마를붉게데우고잔바람마저없어 등줄기엔 연신 땀방울이 흘러도 덧붙여 목마름으로 목구멍이 타들어 간대도, 일제에 항거했던 선조들의 저 웅혼한기상에는닿지못하느니, 참고견디라며행하던 폭염속의의식이었다고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각 마을에서 쳐놓은차일과나무그늘밑에서애국가를부르고묵념을올렸습니다. 일제에 항거하던 지사들의 모습을 바람 부는 시원함 속에서, 그늘 아래 선선함 속에서 차분한 마음으로 청량의가슴으로느끼도록주최측이배려한것입니다.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하루 종일 행사가 빡빡합니다.

조그만 변화입니다. 그렇지만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변화된 의식에 대해 행사를 주관한 신지면 청년회의 젊은 사람들에게 어르신들 몇몇이서 옥의 티라고 평하였다고 하니, 작은 변화의 추구도 쉬운일이아니란걸알았습니다.

개회식의연단에앉은 분들에 대한간략한소개가끝나고대회사, 축사, 격려사등이이어집니다. 도서지방에 항일운동기념탑이 세워진 곳은 전국적으로 완도군 의소안면과신지면두곳밖에없다고치하합니다. 전국 의군단위나면단위에서이처럼뜨겁게타오른항일운동의 전례가 없었다는 이웃 소안면 못지않은 신지면의 항일투쟁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신지도의 풍요로움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모두 표출합니다. 드라마 <해신> 이후의 지역 발전의 공과에 대해 언급하기도 합니다.

정치인들은아무래도치적에민감합니다.

식이 끝나고 마을 이장단 달리기를 시작으로 운동 경기가펼쳐집니다. 다양하진않지만, 노령화사회로진입한 농촌현실을 반영한경기종목들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달리기와씨름, 줄다리기를마을별로편을갈라 대항합니다. 법정리(法定里)는 6개지만 운영리(運營里)는 19개나 되어 편이 많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기념하던 전통의 경성축구 시합처럼 이곳신지도에서도축구만으로광복을경축하였답니다.

그때의 열기는 매양 싸움판으로 끝나기 일쑤였다지요. 시골 고향의 체육대회라는 게 마을별 대항으로 이뤄지는 건 아시잖습니까. 아울러 마을의 체면은 으레 지고도당당해야하며또한졌다고해서섣불리고개를 끄덕여 동의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었잖습니까? 혹여 경기도중의매우민감한판정에대해선누구도흥분을 가라앉히려하질않았던게전통이었습니다. 결국예상

▲이날 행사에는 그야말로 거동할 수 있는 어르신들까지 모두 나오신 듯합니다.
◀여자 달리기에서 우리아이들이한몫을담당했습니다.

밖의행동이분출되기도하였으며, 이는경기가끝나고 화합하는 자리에서마저 사나이의 기백으로 찬사되곤 하였지요. 지나침이넘치자, 젊은이들만의우꾼한잔치로끝나는판을깨고면민잔치로아퀴를지었다고합니다. 물론 마을별로 시합에 나갈 11명의 젊은 선수를 뽑을 수 없을 정도로 젊은이들이 도시 변두리와 공장의 잉여노동력으로전환하여떠난게가장큰원인이었지만말입니다.

축구가 빠진 씁쓸한 운동판

그러기에 경기종목을보면서 더욱가슴이아픕니다. 예나 지금이나 줄다리기는 노인네들이나 여인들 몫이었습니다. 달리기와씨름은그나마젊은사람들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축구 없는 운동판은 시금씁쓸한 맛 그대롭니다. 아무리 싸움판으로 매듭지어진다고 축구를종목에서제외시키다니요. 그것도이곳신지도에현재 살고 있는,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에 속하는 당신들의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군들 없애고 싶어서 없앴겠습니까? 싸움이 더거칠어지더라도청년들의 용맹성과 강단짐이 돋보이는 축구는 남녀노소 즐기며 함께 소리 지르고 함께 더덩실 춤추는 격정의 경기인지모르지않는젊은사람들의손에의해제외되었다는점이더욱아프게닿습니다.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잔치에 나온 마을 사람들은 모두 노인들뿐입니다. 마을에 젊은 며느리 딱 한 명이 선명히보입니다. 그옆으로사내아이가새근새근잠들어 있습니다. 얼마나 오진 풍경인지요. 얼마나 서글픈 광경인가요. 마을 단위에서는 이제 젊은이들을 찾을래야찾을수가없습니다. 겨우한둘있을까말까합니다. 동고리만이 아닙니다. 농촌이나 산촌보다 경제가 그래도낫다고하는어촌의풍경이이러합니다.

어제오늘의일도아닙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실시한총인구간이센서스에의한통계를보면농어촌 인구는 1997년에 9.7%를 점하였습니다. 이 땅에 우리 민족이살아온이래로농어촌인구가전체인구의 10% 이하로떨어진것이실제로확인되었지요. 그뿐이아닙니다. 어느 지역과 어떤 인력의 분포보다도 더 빠르게 고령화되어 가고 있으며 또한 부녀화가 심화되어 가고 있음을 여기에 열거하지 않은 통계 수치가 말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GDP 총생산량의 3.7% 이하를 농어가가차지하고있다는통계수치는비참합니다. 인구비례의2분의1에도미치지못하는생산성을유지하고있는 바, 누가 농어촌에 살려고 하겠습니까? 문화 · 교육적박탈감은더말해무엇하겠습니까?

이렇게 흘러갈 이야기가 아님에도 제 마음 속으로는 의도한 길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잔치마당 언저리에서 불편한 이야기를 곁들이는 건 좀 생뚱맞긴 합니다. 그럼에도 기념식 마치고 잠시 제 방에서 오간 몇몇 유지 분들의 이야기 서너 마디를 소개해야 제 속이 풀릴 것같습니다.

“ 신지중학교엔혼혈2세학생없소? ”

“ 현재는 없는데, 전임 학교에는 있었지요. 필리핀계였어요. ”

“ 아무리 세계화 시대라고 하지만 참, 어떻게 지켜온 단일민족인디. ”

“ 그거야, 각자사상과감정의차이제. ”

“ 근본적으로는 농어촌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겁니다. ”

“ 더 큰문제는 그사람덜이여기에 와서잠시 있다가는대부분잠적해버린다는것이지. ”

“ 한국행의연유가처음부터다르기때문에그래요. ”

“ 접때 본 게 물하태 쪽이던가, 거그에‘ 베트남 처녀와결혼/확실보장 ’이라든가허는문구가걸렸더만. ”

“ 신상리 동초등학교 앞 삼거리에도 전에 머가 걸렸던디? ”

경기 종목은 다양하지 않지만 상품은 푸짐합니다

“ 모종교단체에서외국인을위한‘ 한글교실 ’을연다고내걸었었지요. ”

“ 그렇게나많은가? ”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짐작하셨을겁니다. 농어촌 총각들이장가가기가힘들다는게어제오늘의현실이아닌 까닭에, 마치 자신들의 이야기처럼 매우 들떠 말씀을나누더군요.

“ 경제사정이그나마낫다고하는어촌도이런판인디……. ”

“ 당최, 힘든일이라고는하지않으려드니께. ”

“ 선생님 여기 계시지만, 우리나라 교육이 잘못돼서 그런다고봐요, 나는. ”

교육문제로 귀착되는 걸 들으면서 교육 현장에 있는 저또한그일면에고개를끄덕입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립니다. 이야기 그만 나누고나와서 음식드시라고……. 잔치마당은아무려나흥겹습니다.

한상준

전북 고창 출생
1994년 『삶, 사회 그리고 문학』지에 「해피데이의 도둑」을 발표하면서 작품활동 시작
작품집으로 『오래된 정비』가 있음
현재 교육문예창작회와 민족문학작가회의 회원이며 전남 완도 신지중학교 교장